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강경림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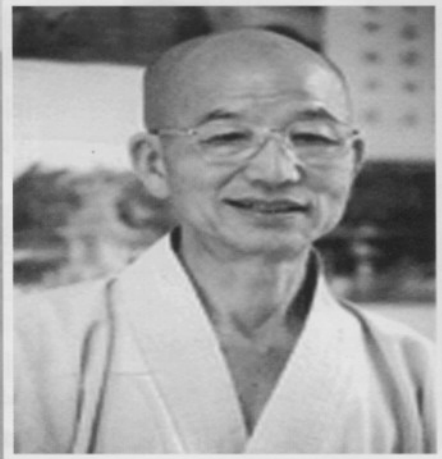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서촌실곱번째>

개원5주년기념. 정무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현대인의 정신건강
- 일시 : 불기2550(2006)년 4월 15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정무스님 약력]

- 1931년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출생
- 1958년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은사로 출가
- 1968년 영주 포교당 주지
- 1970년 제2교구 중앙종회 의원
- 1971년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 2003년 현재 안성 석남사 회주
- 2003년 경기불교문화원 증명법사



4월 사찰환경 답사

[춘천 청평사, 고슴도치 섬,
당간지주, 칠층석탑]

- 일 시 : 2006년 4월 16일(일요일)
- 출발지 : 오전7시 30분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4월 초



부처님이 오신 뜻

보현진열/감로향사 분향주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부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크게 역사적인 면, 철학적인 면, 문화사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1. 역사적인 부처님(또는 報身佛)

2,500 여년 전 인도에서 석가족 출신 고타마는 왕자로서 태어났다. 당시 습속에 따라 마야 부인은 해산하러 친정으로 가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그를 낳는다. 왕족의 탄생 풍습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걸으며 오른손 엄지로 하늘을 향하고, 왼손 엄지로 땅을 가리키며 일성을 토한다.

“세간에 존귀한 몸이 나투었으니,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을 편안케 하리라!”

존귀한 몸이란 부처님이란 의미요, 중생을 편안케 함은 부처님의 일생 교화 활동을 말한다.

부처님은 고통을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깨친 분이란 뜻이니, 부처님의 활동은 바로 중생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서로 간에 반드시 어리석은 갈등과 증오가 얹혀 있다.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이기적인 쟁취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고 증상하고 죽이려는 관계에서 삶의 고통은 시작한다. 그 밑바탕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無明)이 자리하고 있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발현이다. 역사적으로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셨고, 지금도 제도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제도하실 것이다.

2. 철학적인 부처님(또는 法身佛)

역사적인 부처님은 자연스럽게 철학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상이라 한다. 불교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참 불자라 할 수 있다. 절을 10년 20년 다니더라도 철학적인 부처님을 알지 못하면 한낱 쪽쟁이 불자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

불교를 사상면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교리나 경전 공부를 바르게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은 어리석음을 깨고 밝은 인생의 삶을 살도록 철학적인 각성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숙성되면 흔들림 없는 불자관이 형성되면서 이욕과 불교가 바라는 밝은 세상(淨土)이 실현된다.

이것은 꾸준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많아 아쉽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철학적인 부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느냐 또는 앎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3. 문화적인 부처님(또는 化身佛)

문화란 우리 몸이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체질과 정서로 배어난 습관을 말한다. 말하자면 불교가 몸에 배어 우리가 문화적인 부처님을 생활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에서 문화적인 부처님을 보살로 표현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이란 고통에 해매는 중생의 간절한 소리를 잘 듣고 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울부짖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기에, 예부터 그런 어머니를 중생은 그리워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바른 불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법신불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신불을 닮아가고, 화신불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렵다고 보면 평생 하지 못하지만, 쉽다고 하면 눈 깜짝거림보다도 빠를 것이다.

경기 불교

한방강비 전문점 고향숯불강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통권30호
첫지순례

인도네시아, 발리, 족자카르타 순례(II)

경기불교문화원장/ 우양 금당 진철희



인생이 여행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끝없이 길을 떠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상의 수레바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벗어났다고 해도 제대로 된 그릇 하나 찾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기에 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성지순례는 매순간마다 현지에서 부처님을 찾아나서는 여행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실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현지인과 접하여 이질적 문화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신심이 일어나는 여행이 되어야만 “수행하는 불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리(BALI)섬의 어원은 원래 wali(제물)인데 산스크리트어가 변형해서 현재에 이르며, 인구 320만명, 면적은 5,561km²로 제주도의 2.7배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26개주 중 가장 작으면서 아름다워 여러 별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들의 섬”으로 통하고 이 이름은 발리인들의 독특한 종교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발리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회화, 조각, 가물란, 춤 등 모든 문화는 신에게 바치는 것이며, 신들을 기쁘게 하고 신들과 교신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신에게 다가가는 길이 되므로 이러한 종교 문화를 무시한 채 발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의 종교 중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리에 산다고 한다. 16세기경 동자바의 인도네시아의 강성왕조, MAJAPAHIT 왕조에 이슬람 세력이 유입되어 왕조가 붕괴되자, 힌두교 승려를 주축으로 발리로 이주하면서 발리 토착민이었던 Bali AGA족은 산속으로 피신을 하여, 이들이 발리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토착종교와 중국의 대승불교 등을 흡수, 새로운 인도네시아 힌두교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때 왕자가 아궁(Agung)을 이름에 붙여 지금도 아궁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발리섬에도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있지만, 인도에서와 같은 불가족 천민들은 없다. 그러나 발리인은 이름으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카스트의 네번째 계급인 슈드라가 많이 살고 있고, 남녀 차별없이 차례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독특하다.

첫째는 “와안”, 둘째는 “마데”, 셋째는 “노만”, 넷째는 “끄똥”이며, 다섯째는 다시 “와안”으로 돌아가며 끝에 “발릭”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즉 “마데”는 둘째, “와안발릭”은 다섯째를 뜻하며 승려계급인 브라마한의 남자는 “바구스”, 여자는 “아유”, 두번째 계급은 “아궁”, 세번째는 “웨시아”라고 불리운다고 마데 가이드의 설명이다.

발리의 힌두신은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신이 천국, 지구, 하늘, 방위를 만들었으며 여신 “사라수와티”는 지혜, 헌신, 창조 등을 뜻하며, 백조를 타고 다닌다한다. 생명을 주관하는 “비슈의 신”은 가루다를 타고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지상계를 왔다 갔다 하며, 여신은 수리이며,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파괴의 신 “시바신”은 죽음은 현재보다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한 더 나은 세계에 태어난다고 믿고 있으며, 여신으로 “두루가(란다)”이며 가네사가 그의 아들인데, 시바신이 자신의 자식인 줄 모르고 머리를 제거해 버렸는데, 나중에 자식인 것을 알고 가까이 있는 코끼리 머리를 가네사의 머리에 박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가네사는 장애를 없애주며, 기억을 총명하게 해 준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한다.

발리의 대표적인 산은 아궁산(GUNUNA AGUNG)과 바뚜루산(GUNUNG BATUR)이 있는데, 이중 아궁산은 해발 3,412M로 발리인들은 구름아궁을 성스러운 산이며, 세계의 배꼽이라고 생각하며 잠잘때도 머리를 아궁산으로 향하고 자연 집안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 구름아궁산은 활화산이며 가끔 분화를 하고 있다. 1963년 3월에 대분화를 일으켜서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는 100년에 한번 있었던 DASA RUDRA라는 악을 쫓는 의식 중에 일어나 피해가 컸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켜 불운했던 수카르노의 신성한 저주라고도 표현한다. **경기 불교**



가마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법문

복(福)중의 복은 인연 복이 제일이라

미타스님



화 엄경의 내용 중에 “부처님의 진리의 몸은 우주에 가득 차있으므로 허공을 둘러싸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佛身充滿의 법계는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 나투신다.”

이 훌륭한 경기불교문화원의 건물도 허공이 있으므로 생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눈쁜자에게 만 보일 뿐 맹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중의 복은 인연 복이 제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또한 저와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법문을 듣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법문을 듣기 위한 준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세, 체, 통」을 버려야 합니다. 세, 체, 통이란 허세, 권세, 유세를 버리고 아는 체, 잘난 체, 있는 체를 버리고 아만 통, 거만 통, 고집 통 또한 버려야만 됩니다. 불자들이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인연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달라집니다.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인연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인연이 없다고 하여 돌아섭니다. 인연을 이렇게 교약하게 옮겨 먹는 것은 잘못된 인연관입니다. 기존의 인연은 윤회로만 파악하였습니다. 윤회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얽히는 것입니다. 인연은 글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만남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만남은 만남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을 만남으로 하여야 인연이 됩니다. 모든 세상사가 만남으로 시작하면 나쁜 인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의 관계를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불할 때 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사 원수지간의 만남이라도 만남으로 바꾸면 됩니다. 법화경의 제바닷다품에 부처님과 제바닷다와의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닷다는 나의 선지식이었다. 제바닷다로 하여금 나는 인욕을 배우고 육바라밀을 성취하였다. 그래서 제바닷다는 미래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제바닷다를 구하셨는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자비 앞에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慈)는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고 비(悲)는 능히 중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관을 이렇게 바꾸면 불교는 생동감 있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꿀은 달다. 소금은 짜다. 이것은 이 사물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진 상태가 곧 깨달음입니다. 우리들은 깨달음에 대하여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어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 고 하면 유신론(有神論)자들이고 “하늘과 땅과 인간 또한 물질에 불과하다” 고 하면 유물론(唯物論)자. “하늘과 땅은 내가 존재함으로 존재한다.” 고 하면 불교의 唯心論으로 이것은 아주 중차대합니다.

한자의 工(공)자는 一(하늘)과 一(땅)에서 가운데 丨(인간)을 빼버리면 하늘과 땅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 뜻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한 하늘과 땅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一(하늘)과 一(땅)을 너와 내가(人) 받히고 있는 것이 夫(부)로서 하늘과 땅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와 진리를 나타낸 것이 夫(대장부)로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을 꿰뚫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러하듯 말과 글은 진리에 맞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 놀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신 놀음으로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신이란 가상적 존재로 인하여 수많은 전쟁과 비극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신 놀음에 미쳐 인류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절대로 전쟁을 통해서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神)이란 글을 풀이해 보면 본다의 시(示)가 보는 것 중의 가장 밝은 것인 태양(日)을 꿰 뚫은 것으로 불교에서의 신(神)은 태양처럼 밝게 꿰뚫어 보는 사람이 신으로 가상적인 신을 믿는 타종교의 이러한 신놀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밝은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복중의 복인 인연 복에 따라 항상 자기 자신의 삼보에 귀의하여야 합니다.

자심삼보(自心三寶)란 내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불(佛)이고 내 마음의 빛이 법(法)이며, 내 스스로 걸림 없는 마음이 승(僧)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 살맛나는 인연으로 성불할 때까지 이어지도록 정진합시다.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 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기초반) - 4월 26일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기초반/중급반)
- 지도강사 - 홍인숙



팔공산에서 큰 소원, 작은 소원 하나씩을 빌며

사찰답사단원 임가연

동화사(桐華寺)가 자리한 팔공산(八公山)은

○ 신라 때부터 고려, 조선의 왕실에 이르기까지 크게 중시되던 산이었다. 그 결과 팔공산의 골짜기마다 많은 사탑(寺塔)이 들어서게 되었다. 동화사, 은해사(銀海寺), 파계사(把溪寺), 갯바위부처님을 비롯하여 그야말로 팔공산은 불국토와 같은 형상으로 가꾸어져왔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팔공산을 찾고 있다. 오늘 사찰답사에서 만난 첫 보물은, 멀리서 부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잠시 숨 고르라는 의미인 듯 동화사 입구에 있다. 이 마애불좌상은 동화사 일주문 입구 오른쪽의 암벽을 다듬어서 조각한 것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부처님이 반가부좌한 형태로 오른쪽 다리를 대좌 아래로 내려놓았다. 앞서만 따라서 갔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터인데, 대구로 달려오는 차안에서의 법사님의 설명과, 이제 바야흐로 보물을 앞에 두고 살아있는 역사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우아한 문화해설사 열 명이 필요없는 전문법사님이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의 사찰답사의 진수라 하겠다. 동화사에 가면 대한민국 어느 사찰에도 없는 상상속의 동물, 봉황의 알을 직접 볼 수가 있다. 봉황이 깃든 누각'이란 뜻을 가진 봉서루(鳳棲樓)에는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 중앙에 봉황의 알이 세 개가 올려져 있다. 원래는 누각 오른쪽 귀퉁이에 있었던 둥근 돌(봉황의 알을 상징)을 도난 당한 후, 지금은 보란 듯이 사람들이 오가는 계단 중앙의 널찍한 자연석 위에 올려져 있다. 모르고 보면 돌덩어리일 뿐이고, 알고 보면 봉황의 알이니 재미있는 사찰이야기 하나를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동화사와 가까이 있는 비로암(毘盧庵)으로 조용조용 향했다. 비로암의 대적광전에 계시는 석조 비로자나부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지금까지 보아온 어느 부처님보다도 위엄을 내세우기보다는 순수함을 느꼈다. 손의 모습은 지권인으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형태이며 대좌와 광배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손상이 거의 없는 9세기 비로자나불 양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일반인들은 잘 찾지 않는 한적한 산사(비로암 대적광전)에서 오래 앉아서 찬찬히 바라보고 싶은 마음 간절했으나, 지꾸 가자며 그네들이 보낸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왔던 길로 다시 간다. 동화사 대웅전 서쪽에 1만여 평의 대도량을 새롭게 조성한 약사여래불입상과 통일기원대전

(統一祈願大殿) 및 성보전시관을 말 그대로 구경했다. 통일기원 약사대불은 화강암으로 좌대높이 13m를 포함하여 30m 높이의 석불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고종~조선을 거쳐 108명의 석공들이 약 7개월 동안 만들었다. 통일기원 약사대불은 1992년 11월 27일 점안식(點眼式)이 있었다. 도량에 이르는 계단은 108개로 하여 백팔번뇌를 상징하였다. 석불 맞은편에는 약사여래를 지킬 통일대불전이 조성되었다. 성보전시관에는 탱화가 수장되어 있다고 한다. 약사여래의 본원은 병들어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신앙적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중생이 앓고 있는 일체 병고와 갈등과 대립은 물론이고,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탐욕을 버리게 하는 약사여래의 대서원이다. 우리 역사 속에는 불력(佛力)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신라시대의 황룡사 9층탑 조성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었고, 고려의 대장경 불사(佛事)는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당당한 부처님께 삼배를 하는데 저절로 깊은 뜻이 융솟음 컸다. 지금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지만, 통일대불의 조성으로 보다 큰 민족 대화합을 이루어서, 분단으로 말미암아 이념적 갈등과 민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마침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하루 빨리 반드시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봄볕을 받아 따뜻한 대리석에 서서 잠시 다음 일정도 잊고 있는데 그네들이 빨리 가자 한다. 팔공산 남쪽 봉우리 관봉(冠峰)정상에 자리하고 있는 갯바위부처님을 만나러,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었다. 이제 등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선본사를 경유하는 길로 급경사에 끝없는 계단이 이어지지만 30분 정도면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정상에 도착하니 역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기도에 열심이다. 나도 자리를 잡고 정성들여 108배를 올리고 기분 좋게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굴속에 아기부처님을 모셔 놓은 '애자모 지장굴'과 선본사를 들었다. 선본사(禪本寺)는 멀리 관봉이 바라다 보이는 아담한 절로, 따뜻함이 묻어났다. 비록 경내가 팔공산의 가파른 산세여서 측대 위에 자리잡고 있지만, 절 앞쪽에 선정루(禪定樓)를 세워 범종각 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본사 쪽에서 갯바위 부처님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꼭 들리게 되는 것이다. 관봉이 곧 우리말로 '갯'이므로 흔히 갯바위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또 머리에 마치 갯 같은 판석이 올려져 있기에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공식명칭은 '관봉석조약사여래좌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석불 좌상으로서 전체 높이는 4m에 이른다. 화강암 한 돌로 만든 것인데 몸통뿐만 아니라 대좌도 역시 한 돌로 되어 있다. 불상의 광배는 없지만 관봉의 정상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좌불상으로 한 가지 소원을 간절히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영험한 부처님이시란다. 이 갯바위 부처님은 절에서 전하는 바로는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수제자인 의현(義玄)대사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638년(선덕왕 7)에 조성한 것이라 하지만 전체적 양식으로 보아 8~9세기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현재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선본사의 갯바위부처님이 알려졌을까? 이 불상은 대구 시민 중 소수의 등산가와 간혹 치성드리러 간 몇몇 민간인 사이에 알려졌을 뿐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팔공산의 석조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1962년 언론에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최근에 들어와 알려지기 시작한 선본사의 갯바위부처님은 한국 약사 신앙을 대표하는 영험있는 기도처로 자리하게 되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간절히 빌고 내려오는데, 시골 할머니들이 떡과 봄나물을 내다 팔고 계셨다. 뭇들 안 좋아하랴만 재래 시장에서 물건 살 때보다도 신나서, 이것 저것 구경하는 기분이 시골장터분위기와 비슷하여 여행의 피로가 사라졌다. 정다운 이웃이 좋다. 봄철 나물 구경길에서 갯바위부처님의 미소가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듯하다. 성불하세요!



경기 불교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 241-1004 / 원장실 031) 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초발심자경문 강좌안내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내용 : 초발심자경문 • 기간 : 3개월 과정
- 수강료 : 90,000원
- 강사 : 지묵스님



건강하게 하는 요가(YOGA)운동

요가 강사 이수현

싸늘하고 춥던 매서운 바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직은 싸늘한 바람이긴 하지만 상큼하고 꽃향기를 가슴에 한아름 안기듯이 따스함을 전하는 봄날 요가 강사 이수현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하세요!!

요가와 발마사지로 이곳에 와서 수련을 받았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한국무용을 취미로 약 8년을 하다가 무용지도자 코스로 명지대와 한경대를 다녔습니다. 무용도 많이 운동이 되지만, 내 자신 건강을 생각하여 다시 요가를 만난 것이 몸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생활의 활력소와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저를 아름다운 맵시와 건강으로 몸과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서서히 몸의 상태를 느껴가면서 몸을 소중히 사랑하는 수련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요가운동을 꾸준히 수련하면 신체의 불균형이 정리도 되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편안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요가 수련과 몸의 원리에 따른 나 자신의 부단한 노력만이 나를 아름다운 맵시와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자아분석의 길이면 방법입니다. 자아를 위해서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생활이 가장 기본이며, 철학적 사색, 심리적인 명상, 생리적인 육체수련에 유리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선행, 절대자에 대한 헌신 등..... 어느 하나의 방법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 교육수준, 연령, 건강 정도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가는 학문적, 종교적 독단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인류가 창출해 낸 모든 방법이 배포된 혼합이 아닌 통합적 심신 수행 방법입니다.

-요가 운동의 특성-

- ① [요가운동]은 평상시 잘되는 동작은 피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방향의 동작을 찾아서 운동해야 합니다.
- ② 생활 속에서 자주 수축하는 근육이나 신경은 이완시키고, 지나치게 늘어난 조직은 수축시켜 균형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 ③ [요가운동]은 본래의 기본능력을 회복시키거나 보존시킵니다. ④ [요가운동]은 신체이상의 진단법이 되며, 그것 자체가 치료 회복법입니다.
- ⑤ [요가운동]은 어색하고 힘든 곳을 찾아서 서서히 자연스럽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⑥ 단전을 중심으로 전신이 협력하여 모든 방향으로 작용되게 운동해야 합니다.
- ⑦ [요가운동]으로 자극이 생기는 곳에 깊은 호흡과 동시에 집중을 깊이 해야 합니다.
- ⑧ 여러가지 체위(ASANA)를 취하여 의식을 집중해 줌으로써, 혈액이 조직에 원활히 공급되게 합니다.
- ⑨ [요가운동]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스스로의 길입니다. ⑩ [요가운동]은 자신이 취한 완성 자세에서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 ⑪ [요가운동]은 자신의 누워진 습관을 바꾸는 반대 운동을 반복적으로 수련해야 합니다.

- 요가 운동의 효과-

- 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다(전, 후 좌, 우, 상, 하)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서 몸 전체를 탄력적으로 형성시킵니다.
- ② 체내 에너지의 막힘을 풀어주며 어혈을 감소시킵니다.
- ③ 운동 수련시 생기는 땀은 닦지 않고 그대로 말림으로써 피부와 근육을 부드럽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④ 심폐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호흡량이 커지게 해 줍니다. ⑤ 소화기관을 활성화시켜 소화력을 개선시켜 줍니다.
- ⑥ 긴장과 이완의 반복으로 신경계와 내분비선(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 ⑦ 체내 필요없는 물질을 없애주며, 독소를 자율정화 시켜줍니다.
- ⑧ 지속적인 수련은 다이어트 효과, 노화방지 효과, 신체수정 효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뛰어나게 합니다.
- ⑨ 에너지가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어 심신이 안정되고 고요해집니다.

요가는 운동(ASANA), 호흡(PRANA-YAMA), 명상(MEDITATION)은 요가 수련의 3요소이며 셋은 결국 하나입니다.

근육은 부드럽고 관절은 유연하고 골격의 위치는 바르고 장기관은 신축성이 좋아야 호흡이 고르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요가 수련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서 두르지 않아도 저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 불교**



4월달 후원회비 내주신분들 4월1일~5월1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강기순, 강재수, 구광국, 공석남, 김기현, 김말수, 김명옥, 김순옥, 김신자, 김영동, 김용필, 김은주, 김정숙, 김준옥, 김준호, 김지은, 김재숙, 김혜자, 민준홍, 박경아, 박선현, 박영희, 박정자, 박홍근, 배민한, 배정희, 서상렬, 서의호, 손용식, 송경주, 송호윤, 신윤식, 심화식, 안영찬, 양준영, 양재홍, 어윤식, 염규용, 윤광숙, 윤영무, 이기원, 이기순, 이난호, 이남덕, 이대곤, 이병일, 이사현, 이상남, 이상범, 이선우, 이수교, 이수현, 이영옥, 이윤철, 이임성, 이태순, 장영남, 장옥훈, 장용집, 정경화, 정무근, 정재안, 정현숙, 정효진, 조권형, 조남종, 조명숙, 조병희, 조성남, 조창윤, 주인수, 진기홍, 진상범, 진주범, 차용희, 최명길, 최숙련, 최정자, 함대식, 홍인숙

기본교리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5월 9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 등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50,000원 • 강사 : 포교사 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 백인에게 듣는다(서른여섯 번째)



불기2549(2006)년 3월 18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미타 스님의 “복(福)중에 인연 복(福)이 제일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었습니다.

● 3월 삼보사찰순례



3월 사찰답사는 팔공사 동화사, 갯바위였습니다. 동화사에서 우리 불교문화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40여분을 걸어서 올라간 갯바위에서는 갯바위 부처님의 웅장함과 팔공산의 경치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교육 강좌

• 상반기 강좌

- 경전강좌 지목스님의 경전강좌가 3월 9일(목) 오후 7시에 개강하였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기초교리와 불교미술의 이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초교리는 수요일 오후 7시, 불교미술의 이해는 금요일 오후 7시에 수업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수지침과 노래교실(찬불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지침은 수요일 오후 4시, 노래 교실(찬불가)은 화요일 오후 1시에 수업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다도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업하오니, 전통 다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행사안내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제18회 뉴욕 국제 법요식 및 제8회 국제 불교인의 밤 참가단 모집
일 시 : 2006년 5월 15일~5월24일(9박10일)
일 정 : 인천->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보스턴->뉴욕->인천

주요 일정: 국제 불교인의 밤 참가
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뉴욕 관광
국제 봉축 법요식 및 제등 행렬 참가
동참금 : 2,390,000원 (비자 별도)

▶ 제5회 정기총회 개최

2006년 3월 19일 17시 경기 불교 문화원 대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보고, 2006년 예산및 일반 사업 승인, 문화원 운영규칙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수입 -

차년이월	회비	불전금	강좌비
8,318	24,162,997	9,123,500	15,600,000
사찰답사	기타수입	총수입합계	
34,095,000	24,502,377	107,492,192	

- 지출 -

인건비	운영비	회보	법회비및행사사업비
25,191,000	18,164,630	5,225,220	14,248,510
사찰답사	총지출합계	잔액	
32,827,900	106,963,797	528,395	

▶ 초파일 연등 접수 및 행사안내

불기 2550(200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 접수를 하고 있으며,(1년 가족등, 영가등을 1인당 3만원이상) 5월 5일 오전 10시 본원에서 법사님을 모시고 초파일 행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계소식

- 북한 국보급 유물 남한 첫 나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나옹스님 육환장 등 6월부터 전시
나옹스님의 육환장(六環杖), 개성 관음사 관음보살좌상, 불일사 오층 석탑 출토 금동탑 등 그동안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북한의 국보급 유물들이 오는 6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3월28일 “북한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첫 교류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북한 문화재 특별전(가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원시 연등축제

수원시 불교연합회 주최로 인한 수원시 연등축제가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양천사에서 개최되며, 제등행렬도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06년도 상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6년 3월~5월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5/9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지묵스님	30명	16주 120,000원	초발심 자경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26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4/26개강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초급)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이영준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정무스님	100명	무료	현대인의 정신건강	4월 15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청평사, 고슴도치 섬, 당간지주, 칠층석탑	4월 16일 오전 7시30분 출발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고.대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